公務員生活保障에 新對策
約一個月後에 斷行
白總理, 自信있는 意中을 披瀝

【釜山分室發】 十九일 백(白) 국무총리가 기자단에게 언명한바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一개월후에는 어떠한 과단성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무원의 대우개선을 단행하고 현재 그방안은 입안중에 있다고한다 백총리는 공무원의 생활보장은 八·九할까지 해결될것이라고 말하였을뿐 어떠한방법을 취할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지않았다

(사진은백국무총리)

旣定方針대로實行
綴字法改正、審議委員會서 硏究

【釜山分室發】 백(白) 국무총리는 十九일 출입기자단과 회견하고 철자법폐지문제와 五월환도설에대하여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철자법폐지에관한시비에대하여=정부에서는 공문서등에있어 좀더훈령을 수행할것이다 그리고 문교부장관이 국어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 계속연구하게될것이다

▲五월말환도설에대하여=정부는 계속해서 서울분실을 강화하고있는것만은 사실이고 서울환도는 그때를자세히 알수없으나 확실히 서울은 우리가올라가야할것이다 정부로서는 서울시내에있는 관공서용건물로 적어도 二十一채가량은 급속히 수리하여야되겠으므로 반드시「호텔」수리와 병행하여 곧 착공하게될것이다

테일러將軍 最前線視察

十八일오전九시 八군사령관「테일러」장군은 七二九六부대장 최창언준장의 안내로미군九군단장「제ㅇ킨」중장과함께 민개부대 대대전방사령부인「챗벌」고지에올라가서 한시간에걸처전투시찰을 하였다

歸財 拂下折半을今年에
管財廳에서 準備를促進

【釜山分室發】 관재청 이때귀속재산의 처분실적이八十五년도당현재로 전체전수의 불과十二「퍼센트」밖에안되는 극히 지지부진한 상태임에비추어 관재청에서는 수입증가의한 방책으로서 금년도중에미처분건수의 절반인 七만五천건을 집단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을추진중에 있으나 신년도예산중에는 六천여건 처분에필요한경비밖에 계상되어있지않으므로 나머지 五만八천건 처분에필요한 추가예산을 작성중에있다고한다 그런데 동청에서 전기一만六천여건은 六월말까지 완전처분함으로써 동예산총과목을 기하기위하여 최근 청장이하 관계각국과장이 총동원하여 지방독려및연관성있는 단체와의 사무적인 한계결정을 절충중에 있다고한다

國防部에 送還周旋을 陳情
以北에 拉致된者

【釜山分室發】 六·二五사변중 우리나라의 유익한인재 八만명이 적에게납치되어간이래 그의생사귀추를알수없어 한결같이 돌아오게되기만을 고대하고있던 피납치자 가족회에서는 조속한시일내에 납치자를 귀환케하여달라는 진정서를 十八일 국방부에 제출하였다한다

서울市豫算認可

六억三천八백만환에 달하는 서울시의 금년도예산은 十七일부로 내무부의 인가를 보게되었으므로 정식성립을 보게되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三천만환에달하는 시공채(市公債)를 발행함으로써 적자(赤字)재정에 충당할것을 꾀하고있는데 여기한 시공채는 인쇄관계로 다소지연되어 오는월말경부터 시중에 나타날것으로 보여진다

世醫大에서 創立記念音樂會

「세부란스」의과대학에서는 오는二十三일 하오六시반부터 동교창립六十九주년기념음악대회를 시내 배재중학강당에서 개최하는데 찬조출연으로 宋鎭鷹(테너) 金元福(피아노) 桂貞植(바이올린) 씨등이 출연하기로되어 대성황이 예기된다고한다

不良한遊興稅納付
安司稅廳長、强權發動言明

안정근(安定根) 서울사세청장은 十九일 상오十一시 출입기자단과 회견한 석상에서 신년도 각종세액징수는 예정대로 추진되고있으나 그중 물품세와 유흥세 징수는 예년과같이 여전히 좋은성과를거두지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에대한강력한 조치를취하겠다고 다음과같이 언명하였다

▲遊興稅=허가 무허가를막론하고 체납업자에대하여는 종래의 미온적태도를 버리고 강권을발동하여 동산및 부동산을차압한후 그래도 납부치않는자에대하여는 단시일내에차압물품을 방매처분할것이다

▲物品稅及織物稅=납세증지(納稅證紙)없는 물품은 수량의다과와 정상여하를불문하고 수시몰수하여 경매처분키로 하였으니 업자들은 사전에각고하기를바란다

公報處에서 六·二五標語募集

공보처에서는 六·二五사변제三주년기념행사를 앞두고 국민행사에쓸 표어를 모집한다고한다 그런데 표어의요령은 六·二五사변을 조발한 공산침략자를 완전격멸하기위한 적개심을 앙양케하며 통일없는 휴전을 반대하며 북진통일의 결의를공고케하며 군경과 참전각국장병의 노고에 감사의뜻을표하는것이라는데 상금은 一등一인에二천환 二등二인에천환씩이라고한다

「어머니날」잔치
培材講堂에서盛大擧行

새법제정이래 처음맞이한 五월八일"어머니날"의 기념식과 위안잔치는 十九일 오전十시 四十五분부터 배재중학강당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서울시주최인 동대회에는 수많은 입재존경받는 어머니들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이(李)대통령부인을 비롯한 각계대표와 이날의 주인공들인 많은어머니들로 장내는 입추의여지가없는가운데 식은 경찰악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식순에따라 이대통령부인은 나의어머니는 이자리에 모시고와서 여러분과 한자리에서 즐기지못함을 섭섭하게생각하는바입니다마는 다음 『뜻깊은 이날을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적 정신을 크게 찬양하는바이며 앞으로 더 빛내주기 바랍니다』라는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공보처장을 통해 위로하였다 이어 애국여성 표창이 있었고 애국여성 어윤희(魚允姬=七六) 여사를비롯 조희달(趙姬達) 여사와 七명의 효부(孝婦)와 서인영(徐仁永=九二) 여사외 七명의 고령자 그리고 다산부로서 김기숙(金基淑=四五) 여사외七명에게 각기 표창장과 상품수여가있어 일단 기념식을 끝마친다음 오후부터는 시내각유치원과 국민학교아동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다복한여러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노래와 춤등으로 다채로운어머니 잔치는 늦도록 계속되어 어머니들을 위로하였다

(사진은 동기념식광경)

日用品市況

19日 小賣 (單位圜)

		서울	釜山
▲穀物			
쌀	(斗20)	940	1,000
찹쌀	(〃)	1,100	1,300
보리쌀	(〃)	600	700
콩	(〃)	100	1,100
팥	(〃)	1,000	1,200
▲食料品			
牛肉	(一斤)	160	160
豚肉	(〃)	130	128
白설탕	(一斤)	120	120
鷄卵	(10個)	140	130
멸치	(百匁)	70	60
무우	(一貫)	180	100
배추	(〃)	150	60
▲布類品			
廣木	(一疋)	55	50
玉洋木	(〃)	65	60
▲燃料			
장작	(一坪)	2,100	2,300
숯	(一俵)	200	250
▲貴金屬			
金	(一匁)	1,850	1,800
銀	(〃)	25	20

復舊된華川發電
二十一日부터、機能을發揮

화재로말미암아 지난十三일이후 발송전을 중단하고있던 화천(華川)발전소는 그간 복구공사를완료하고 二十一일부터 종전과같이 발송전을 계속하게되었다 즉 지난十三일하오二시二十五분 미군「헤리콥터」가 고압선에 저촉됨으로 말미암아 동발전소내의 변전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시설을 소실하였었는데 전업(電業)에서는 즉시복구공사에 착수하여 배전반(配電盤)은 목제로 가건축하고 직류전원(直流電源)인 회전변류기(廻轉變流器)를 十七일 부산으로부터 가져오는한편 변압기(變壓器)는 백「키로왓트」二대로써 대용하고 一만천「키로왓트」「케불」도 가공선(架空線)으로 대용하기로되었으며 기타 시중에서 구득키어려운 자재는 청평(淸平)발전소의것을 전용하는등 화재로인한 피해가대부분 복구를보게되었으므로 二十一일부터는 종전과같이 평균二만四천「키로」의전력을 발송전하게되었다고한다

地籍協會理事會

전국각세무서의 산하기관인 지적협회(地籍協會)에서는 二十일 상오十시 서울 사세청에서 인태식(印泰植)협회장을 비롯한 각지구의 이사들이 참집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다음二十一일부터는 一개월기한으로 전국지적기술자 강습회도 개최되기로 되었다한다

銀行貸付關係도말썽
丁奎成氏事件

구왕궁재산매도협의 사건은 十八일 서울지검(地檢)에 송청되었거니와 동협의사건의 주동적인물이라는 정씨는 지난一월二十六일 부평(富平)에있는 매장물자 인양작업비(埋藏物資引揚作業費)라는 명목으로 四十만환을 상공은행(商工銀行)소공동지점으로부터 단기(短期)신용대부를 받았는데 정씨는 그후 이를 작업비로 사용치않고 구왕궁재산서위조비용으로 사용한것이 문제가되고있다 이와같은 신용대부의 시비가 논의되고 있는점은 특히 단기대부임에도 불구하고 결제(決濟)가지연되어 三월초순에야 대부하고 문제가된 위조인구왕궁저택문서를 상세한 검토도없이 담보로받은사실인바 이에관하여 동은행당국자는 한국은행 분실장의 소개와 추천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정씨의 신원은자세히 알아보지도않고 신용대부를하게된것이라고 말하고있다 한편 동협의사건은 현재 행정및 민사문제가 얽혀있어 민사문제가 야기될것으로 보여지고있다고한다

愛林에信賞必罰
愼農林長官、注意를喚起

신(愼) 농림부장관은 十九일 조림지(造林地) 보호관리에 전국민의 적극적 협조를 요망하는 요지 다음과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금춘 조림기(造林期)에는 관계각부처와 일반국민의 적극적 협조로써 황폐림야(荒廢林野) 약十만정보에 「낙엽송」「잣나무」등 六천五백만본(本) 四十六만九천여립방에 해당하는 식수와 아울러 「메타」에 달하는 조림도 실시하였다 이와같이 정부에서는 매년 조림장려에 힘써왔으나 그성적이 불량한원인은 그의 관리가 철저하지못한데 있으므로 금년에는 특히 조림지 보호관리에 주력을둘 것인바 일반사회애국단체와 국민여러분은 정부의 의도하는바를 받들어 성껏 모목육성에 힘써줄 것을 부탁하는바이며 산림관계공무원은 특히 이점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것이다 앞으로는 중앙에서 현지를조사하여 좋은성적을올린 시도(市道)는 포창할것이고 만일관리가 소홀하여 성적이 불량한시도는 관계공무원을 행정처분할것이니 보호관리에 철저를기하여 유종의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바이다

敗走하는敵 二名을生擒
崔中士의殊勳

지난十七일밤 九六三八부대예하 一九二九부대 정면전초진지에 공격을 가해온 중공군一개중대를 동부대○대대전초소대장 박찬유(朴贊裕) 소위는 전초진지사수의 굳은결심으로 철조망까지 침공해온 오랑캐들을 일보도 양보치않고 소대 전원이 일치단결하여 적을 섬멸하였을뿐만 아니라 동소대 최승환(崔勝煥) 중사는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단신으로 적二명을생포하여 동부대의자랑인 적병

廿日은灌佛節

녹음방초의 향기높은 五월이라 좋은시절! 二十일은 음력사월파일(陰四月八日)과 二十一일의 소만(小滿)이 연이어 닥쳐왔다 농촌의 파종이 끝날무렵 녹음은 짙어졌고 온갖꽃은 활짝피어났으니 고궁속에핀 고운모란꽃을 구경하며 인네들도 五월더위를 피해 녹음을 찾아든다

(사진은 덕수고궁에서)

文化

法窓閑話 (上)

文 仁 龜

人權擁護라는 말이 오늘과같이 世人의 關心事가 되고 또 强調되는때는 없었다。 勿論 搜査에 當하고있는 우리는 職業의 탓도있으려니와 그렇지않은 사람들 입에서도 이말은 늘들을수있으며 新聞도 이런問題를 大大的으로 取扱하고있는 事實을 보아서도 世間의 事情을 알수있는것이다。 이처럼 人權擁護를 부르짖게들 되었다는것은 그反面에 結局 人權이 그만큼 유린을 當하고있다는것을 意味한다고 볼수밖에없다。 人權擁護에 關聯해서 恒常말썽이 되는것은 緊急拘束에 關한것인데 緊急拘束이 一般이 생각하고있는바와같이 그렇게도 不當한것인가 하는點에 對하여 나는 疑問을 갖지않을수없다。 緊急拘束은 글字그대로 緊急을 要하는 境遇에 限하는 拘束을 意味하는것인데 그것은 社會에서 非難하는 바와같은 程度의 不當한것은 決코 아닌것이며 緊急拘束은 緊急拘束대로 相當한理由와 必要가있는까닭에 法律이 이것을 認定하고 있는것이다。 다만 問題는 緊急拘束이 어디까지나 例外에 屬하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原則인것같이 施行되고 있음에 비추어 그것을 어떻게 是正하여서 該制度가 期하는바 目的을 거둘수 있느냐에 解決의 關鍵이 있는것이다。 特定한 境遇에 緊急을 要하느냐 아니하느냐는 結局 搜査官의 良識如何에 左右되는것이므로 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하자면 搜査에 從事하고 있는사람들의 質을 向上시키고 그들로하여금 法의 精神에 立脚한 妥當한處事를 하게하는 道理밖에 없는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바와 같이 緊急拘束은 緊急拘束대로 相當한理由가 있는것이므로 上級者라 할지라도 이것을 全的으로 禁할道理는 없는것이며 事前承認制를 實施한다하여도 口頭 또는 電話로緊急拘束의 必要性을 報告하면 自然承認하지 않을수없는 까닭이다。 搜査를하는데 있어서 열사람의罪人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사람은 내지말라는 것은 하나의 指針이지만 法秩序를 健全히 維持하기爲하여는 또한 열사람의罪人中 하나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된다。

○

그러나 根本問題는 前에도 말한바와같이 搜査機關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人品問題이다。 나는 前日 本欄에 이問題에對하여 若干指摘한바가 있었는데 여기서 새삼스러이 생각나는 것은 英國의 裁判年度(第四期)(미클스·탐)의 初日에 各法院所在地의 寺院(敎會)에서 行하여지는 嚴肅한 祈禱會가 있다는 事實이다。 여기에는 全國의 司法官이 一堂에 모여서 敬虔한 禮를 올린後 비로소 첫事件을 審理하게 되는데 거기서 올려지는 祈禱文은 언제나 새말이고 우리들 司法의 末端에서 일을 맡아보고있는 사람들에게 敎訓을 주는것이 있다。 그 祈禱文은 「全人類의 公正하고 慈悲로운 神이시여。吾等은 謹하여 當身에게 祈願하나이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正義를 司行하며 [illegible] 當身의 任命을 받은 [illegible] 天上으로부터 照覽하소서。 그들에게 正義의 靈과 識別의 靈을 惠授하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人民의 幸福과 당신의 聖名의 榮光을 爲하여 大膽하게 細心하게 또 慈悲롭게 그들의 神聖한 職務를 完遂하게 하소서。」

다시말할必要도없이 司法이라는 것은 判·檢事만이 司法官은 아니며 國家의 司法은 그들에게 依해서만 完遂되는 것은 勿論이나 實際 運營에 있어서는 一線에서 搜査에 從事하는사람에 依存하는바 큰것이다。 (계속)

스포츠

區對抗軟式庭球
廿四日專賣局「코트」에서

서울특별시 정구협회에서는 서울시동회연합회와 본사공동후원으로 서민의체육향상과 친목을도모하기위하여 시내각구대항연식정구대회를 오는二十四일(일요일) 상오九시부터 인의동(仁義洞) 전매국「코트」에서 개최키로되었다 따라서 출전희망단체는 二十三일정오까지 축구청사 회과내에있는 동협회로신청하여주기바라고 있는데 출전자격과 참가(조)수는 다음과같다

一、각구거주시민(단고등학생이하제외)

一、각구五조(남녀무방)

全國蹴球大會 光州에서三日間

호남신문사주최 제六회전국축구대회는 六월五、六、七일、三일간에 걸쳐 광주서중(光州西中) 축구장에서 개최하리라하는데 일반부 고등부 중학부三종목으로 나누어져있다

漫筆

○…관민여러분! 비상시국의 지평에 이르러 봉사하는 갸륵한 지서주임에게 다같이 찬사를 보냅시다!

○…찬사뿐만아니라 이러한 경찰관을 본받아 대한의 민주경찰을 더욱빛냅시다!

○…수원경찰서매송(梅松)지서주임김(金炫均)경사는 말은바 치안확보의 사명뿐만아니라 향상 전재민과 세궁민구호에도 전력을 기울이고있는 모범지서주임으로 면민의칭송이자자한데…

○…동주임은 면내에일반 행정대서소가 없어 일반의 불편이 많음을유감으로 생각한나머지 지서마즌편에『金炫均無料代書事務所』의 간판을 걸고…

○…공무에지고도 한몸을쉬지않고 틈틈이 일반에게 무료로 각종대서를 해주고있다고하니…

○…대한경찰의 아름다운 자태를 높이 찬양합시다!

氣予報

(二十日)

서울地方 南西風乃至西風이불고 曇後晴

釜山=北東風乃至東風이불고 曇

歷史小說 落照의노래 (87)

尹白南 作

金榮注 畫

열사흔날 九

북인은 자기 당파의 세력에 도취하여 세태의 추이와 인심의 귀취는 무시하고 비리의 행패와 정권의 남용이 날로 심하여 가는 중에 소위 국왕인 광해주와의 연계와 이해는 날로 상반해 가는 기현상을 이루게되었다。 여기에 중대한 정계의 간격과 구렁과 위험이 움돋기시작하였다。 다시말하면 광해주는 북인일파의 괴뢰로만 여겼던것이 이제 광해주는 광해군 대로의 주견을 가지고 매사에 어명이란것은 남발하여 북인 [illegible]

후에 김상궁 개요가 있어서 국왕을 조종하는것은 잘 알고있다。 그러나 북인거두들도 김상궁 개요에 대해서는 손가락하나 대보지못한다。 왜냐하면 첫째 국왕이 개요의 손아귀에서 놀고있으니 잘못 건드리었다가는 어명이란 명목으로 어느귀신이 잡아가는줄 모르는 주검을 해야할것이며 또 하나는 개요의 입이 잘못 벌어지고 보면 광해는 물론 북인 거두의 대부분이 역적도역적 극흉무도한 죄명을 입게되는것이다。 이것이 두렵지 않을수없다。

[illegible] 북인전일파의 수족을 묶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광해군이 우정 북인일파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 밑에서 하는일은 아니었다。 매관매작으로 온전히 탈락한 돈을 먹자면 자연 북인일파의 거두의 손은 거치지않고 직접으로 거래를 하여야만 되는것이며 그러한 이익을 도모하는 가지가지의 행동에는 때로 북인 거두의 전횡을 견제하지않으면 아니되는 사태가 발생하는것이었다。 북인거두들은 광해주의 행동과 처사에 대해서 때로는 분개하고 때로는 놀라지않을수없었다。 그러나 워낙 그들의 오늘까지 해내려온 것이 청천백일하에 내놓고는 큰 소리를 하지못할 처지에 있는지라 들어내놓고 불평을 올릴수도 없는일로 그야말로 벙어리 안가슴 앓는양이었다。 몇번이나 슬며시 유생들을 시키어 완곡한 언사로 충간의 상소도 올리어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광해의 어거지를 조장할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광해는 요즈음 일체 그따위 상소를 무시하였다。 북인일파는 임금의 배

체의 멸망이다。 이러한 정국의 사태이다。! 지금 북인일파의 전횡이 심한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자들의 최후의 발악에 불과한것으로 기실은 벼개를 높이 하고 편히 잠을 이루지못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 시국이 이러하니 서인일파의 반정운동은 바야흐로 적절한 기회에 도달한것이었다。 곪을대로 곪기어서 이제 칼끝만 조금놀리면 고름이 쏟아질 형편에 있는것이었다。 김상궁 개요는 음탕한 여성이면서도 상당한 이지(理智)의 머리를 가진 계집이었다。 따라서 시국의 사태를 내다보지못하는것도 아니며 자기가 늙어가는 계집으로서 더구나 선조대왕의 총애를 받아오던 계집으로서 패륜의 음행으로 광해를 손아귀에 집어넣고 그를 조종하여 매관매작이며 생살여탈의 행패를 하는것도 이 왕조가 계속되는 동안에 재산이나 모아놓자는 물욕에서 나온것이며 또하나 중대한 음모가 있어서 그것을 단행할 기회를 엿보고있는것이었다。

演藝案內

▲首都劇場 映畫 二十一日부터 그리운눈동자

▲中央劇場 映畫 二十日부터 深夜의[illegible]

▲平和劇場 樂劇 二十日부터 黃金頭[illegible]

▲東洋劇場 樂劇 十九日부터 [illegible]

▲東都劇場 映畫 十八日부터 사랑의[illegible]

▲桃花劇場 映畫 十八日부터 城壁을[illegible]

▲光武劇場 唱劇 十八日부터 [illegible]

▲[illegible] 映畫 十九日부터 月下의[illegible]

▲[illegible] 映畫 十八日부터 [illegible]

▲永樂劇場 歌謠 十九日부터 歌謠大[illegible]

▲文化館 樂劇 二十日부터 [illegible]

▲市公館 映畫 二十日부터 [illegible]

▲★仁川 愛館 樂劇 十七日부터 兄의길

▲仁川映畫 映畫 十八日부터 [illegible]

▲東邦劇場 映畫 十六日부터 [illegible]

▲文化劇場 映畫 十八日부터 [illegible]

▲★水原 永原劇場 映畫 [illegible]

映画는首都
불타는情熱의邂逅! 사랑의僞裝속에
간직된靑春의大로망!
그리운눈동자
오래간만에登場하는 佛蘭西映画最高峯!
悲戀의巨匠 장·도라노아가 新綠에 보내드리는 妥絶의情熱篇!
「田園交響樂」의 미셀·모르강
「悲戀」의 장·마레
主演의大豪華共演
AUX YEUX DU SOUVENIR
21日부터
首都
서울公開
東南실업공사提供

校舍引受學級增設

學生募集

漢榮中、高等學校校舍引受 인사말씀

[illegible]

檀紀四二八六年五月十八日

漢榮中、高等學校長 朴 顯 植

一、募集人員 中高等第一學年 六〇名 中、高等第二、三學年 若干名

一、出願期間 六月十五日

一、願書接受處 (本校舍) 서울特別市城東區馬場洞三六五 (大韓石炭工場앞)

漢榮中、高等學校

尋人

李在寬

黃海道沙里院北里三三一 (三四歲) 康桂善

群山市忠武路一街 天佑堂藥房

求人

茶房레지 (二十歲前後) 아실분은未經驗者도좋습니다

乙支路네거리入口 茶房 龍宮

◎手術室·入院室完備◎

金産婦人科

首都劇場南忠武路四街東入口

全國男女新人歌手콩쿨大會

◎會員募集◎ 다시없는 이機會에 男女年令不問하고 꼭한번해보시라

漢城劇場에서 22日부터 24日까지

備設機吹込레코-드

申請期日 自五月十三日 至五月二十二日

申請場所 [illegible]

審査長 [illegible]

主催 在鄕軍人會城東區聯合分會

後援 極東레코-드會社

聲明書

[illegible]

檀紀四二八六年五月十八日

서울自由市場露店三十人組

代表 金洪成

同 文基乙

連絡處 自由市場內 진주茶房前 文乙成露店

英語數學

男女66回·학생모집

◎영어과(기초·中·高·特)

◎영문학과 (美人先生)

◎수학과(기초·中·高·特)

◎미용과 (실습·학과)

◎타이프과 (실습·학과)

5月28日개학

官認 서울高等學館

S·E·L·I (乙支路[illegible])